

신앙 소그룹모임이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에게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규(고신대, 선교학)

I. 서 론

1. 들어가는 말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 존재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전체 삶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기독교대학의 궁극적 존재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대학을 규정짓기 위해 김성수는 기독교대학을 긍정적인 용어로 정의하기를,¹⁾ 기독교대학은 ① 기독교적 교육신조(educational confession)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창조된 실재에 대한 관점과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독특하게 성경적이어야 한다. ③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④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후원집단(이사회, 교회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⑤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⑥ 세상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부정적(negative)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positive)이어야 한다. ⑦ 반드시 기독교적 기르침, 연구, 봉사가 있어야 한다. ⑧ 삶의 여타영역, 예컨대 농업, 기업, 예술, 초·중등학교, 노동, 정치, 매스 미디어, 교회생활 등에서의 기독교적 개혁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 성격적인 의미를 내포한 기독교대학을 정의하고 있다.²⁾

이상의 정의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한다면, “기독교 대학은 구성원이 모두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기관의 구조가 기독교적이어야 하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제 학문을 탐구하고, 교육이 시행되는 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와 같은 기독교대학 혹은 기독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세워진 대학들의 공통적인 연구과제는 어떻게 채플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교목실을 중심으로 채플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6개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 이 가운데 4년제 대학으로서 채플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35개 대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 김성수. “기독교대학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27. 그는 먼저 기독교대학을 부정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① 제도교회가 아니고, ② 성경학교(Bible college)나 신학교(Seminary)도 아니며, ③ 일반 대학에 기독교적 요소를 단순히 추가시키는 대학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탁월성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2) Ibid., 31-42.

3) 신경규. “기독교 대학과 선교,” 이상규 편.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226. ‘기독교학교’에 대한 분류는 사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박상진은 ‘기독교학교’와 ‘기독교계 학교’를 구분한다. ‘기독교계 학교’를 교목실의 존재 여부 등 행정적이고 구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교로, ‘기독교학교’는 모든 교과목과 교육활동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학교로 규정한다. 박상진, 『기독교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44.

4) 이동찬·최현정, “대학채플의 만족도와 복음화율을 높이는 세례식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24집 (2013), 49.

각 대학들은 그 나름대로 채플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채플을 활성화 시키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학의 설립이념을 훼손하지 않고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채플운영에 대한 시도들은 벽에 부딪히거나 학생들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한다.⁶⁾

2. 용어정의, 모집단통계 및 연구질문

기독교대학에서 비기독교학생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서도 채플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는 다양한 현실적 요인들로 인하여 신학대학에서 종합대학교로 방향을 수정한 기독교대학들이므로 사료된다. 설립이념을 고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반발과 기독교인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고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협성대학교의 유성준은 그의 논문(2007)에서 감리교 계통의 교단 신학교로 시작하여 종합대학이 된 협성대학교가 이제는 65%의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공동체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⁷⁾ 아울러 호서대학교 한미라(2009)는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학교당국과 학생들이 함께 겪게 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비신자나 타종교인 까지도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비신자 및 타종교 학생들의 채플에 대한 거센 비난과 법적 대응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⁸⁾

이런 어려움과 고민은 고신대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2008년부터 신입생 입학 요건 가운데 신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로, 고신대학교에 입학하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숫자는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한 채플 운영의 어려움은 타 기독교대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약간의 긍정적인 현상은 2010년을 기점으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표1>과 같이 30%를 상회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표2>에 의하면, 학과별로 신자율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100% 신자로 구성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조사했을 때, <표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신입생들의 비기독교인 비율은 4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의 당위성은 고신대학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울러 비기독교인 신입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긍

5) Ibid., 44-45.

6) 김소연,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제34집 (2012), 182-183. 2011년 3월 31일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철회를 위한 행동방안으로 개교 125년 만에 채플을 거부했고, 2012년 4월에는 대구 참여연대가 계명대학교의 채플의무화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2012년 11월 29일 전주대학교의 학생중 한명은 포털사이트에 '강제 개신교 종교수업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종효, "이화여대 125년만의 채플 거부운동," 『중앙일보』 (2011. 4. 5. 현재)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299556,

익명, "전주대학교의 강제 개신교 종교수업 고발!", 『다음 아고라』 (2012. 11. 29. 현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50975>.

이외에도 다양한 채플과 관련된 어려움들에 대하여는 김소연의 논문을 참조하라.

7) 유성준, "기독교 대학 채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제13집 (2007), 134.

8) 한미라, "기독교 대학의 예배에 대한 창의적 접근: 채플 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 「기독교교육정보」 제23집 (2009), 72.

정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학교가 최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1> 고신대학교 신자율

2014 신자율	2013 신자율	2012 신자율	2011 신자율	2010 신자율
69.3%	70.4%	70%	71%	71%

<표2> 신학대학 4개과(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국제문화선교학과, 특수선교학과) 및 예술대학의 1개과(교회음악과)를 제외한 통계

학과	참여자	신자	비신자	2014 신자율	2013 신자율	2012 신자율	2011 신자율	2010 신자율
디자인학부	42	18	24	57	38.9	42	36	27
간호학과	104	60	44	69	79.8	58	71	60
중국학과	32	15	17	74	46.2	47	59	60
광고홍보학과	44	24	20	56	36.0	55	53	50
식품영양학과	39	14	25	35	42.9	36	58	45
사회복지학과	61	43	18	79	74.5	70	80	73
보건환경학부	44	24	20	32	45.9	55	45	63
생명과학부	34	21	13	46	56.0	62	58	58
아동복지학과	45	36	9	77	89.3	80	79	81
화학신소재학과	34	11	23	33	39.1	32	42	56
유아교육과	22	21	1	95	100	95	70	82
의료경영학과	50	30	20	40	56.4	60	66	60
인터넷비즈니스학과	27	13	14	25	27.3	48	50	52
재활복지학과	35	23	12	48	40.6	66	47	50
영어영문학과	51	38	13	67	74.2	75	74	68
총합(명,%)	734명	456명	278명	57.3%	56.47%	58.73%	59.20%	59.00%

고신대학교가 이런 노력을 지속함에 있어서 타 대학들과 차별되는 점은, 2008년부터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입학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을 미리 인지하고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한 신앙 소그룹 모임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실시된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들의 운영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소그룹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먼저, 신앙 소그룹에 대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앙 소그룹에 대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만족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기독교대학들이 채플을 통하여 학교의 정체성을 고수하려 함과 동시에 복음화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신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신앙소그룹 제도를 긍정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이다. 둘째, 신입생들의 신앙소그룹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신앙 소그룹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이다. 이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앙 소그룹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II. 선행연구

지금까지 채플운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채플형식이나 내용의 다양화를 통한 채플의 활성화와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고, 기독교대학에 소속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복음화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떻게 채플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강영선은 그의 논문 ‘대학 채플의 방향정립을 위한 연구’(1986)에서 다양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채플 강사와 설교 내용 및 주제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는다.⁹⁾ 김양현은 그의 논문에서 설문조사를 근거로 그의 논문(2004)에서 기독교대학의 학생채플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채플의 순서를 어떻게 조정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¹⁰⁾

물론 몇몇 긍정적인 시도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먼저, 구완서는 ‘학생들의 자의식 및 채플에 대한 연구’(2006)라는 그의 논문에서 선교적 기능으로의 채플을 제시하면서, 세례식을 통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회심과 복음전파에 대한 긍정적 사례를 보여준다.¹¹⁾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의 제안은 한미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한미라는 그의 논문(2009)에서 채플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4학기에 걸친 채플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한 내용을 발표하였다.¹²⁾ 학기별로 채플의 주제를 정하고, 또 매 채플마다 중점적으로 전달하게 될 하위주제들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고 언급한다. 또한 채플의 진행순서에 변화를 주고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채플의 형식이나 내용의 다양성에 초점을 둘 뿐, 직접적으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어떻게 보살펴주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는 김소연이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2012)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¹³⁾ 그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로서의 역할에 대한 도전을 한 것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의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김문영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2011)에서 기독교대학들이 현재에 실시하고 있는 채플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학들이 이머징 채플(Emerging Chapel)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적절히 잘 지적하고 있다.¹⁴⁾ 교회력에 따라 채플에서 색깔과 상징등 다양한 예술적이고 시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절기와 예전을 활용하는 감각적 채플로의 방향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 역시, 채플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종합대학에서 강제적으로 채플에 참여하는 비기독교인 학

9) 강영선, “대학 채플의 방향정립을 위한 연구,” 『한신논문집』 제3집 (1986), 353-390.

10) 김양현, “기독교대학 학생채플에 관한 고찰,” 『전문대학 기독교교육』 제2집 (1998), 5-38.

11) 구완서, “학생들의 자의식 및 채플에 대한 연구: 인덕대학 1학년생을 중심으로,” 『대학과 복음』 제12집 (2006), 9-39.

12) 한미라, “기독교 대학의 예배에 대한 창의적 접근,” 69-108.

13) 김소연,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 181-209.

14) 김문영, “한국 기독교대학 채플에 대한 비평적 연구: 이머징 채플(Emerging Chapel)로서의 대학채플,”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94.

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향제시는 나타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복음전도의 개념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보여지는 연구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의 대부분은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복음전도설교 및 구원초청 설교에 대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대학채플에서 구원초청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실행”(2001)이라는 연구¹⁵⁾와 “무신론 시대에 기독교대학 채플에서 하나님 이해 설교의 가능성 모색”(2003)이라는 연구¹⁶⁾이다. 이 두 연구들은 김흥진에 의하여 발표되었는데 그는 복음전파의 직접적 도구인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독교대학에서 행해지는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복음전도의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채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분석한다면, 채플 형식의 변화나 내용의 다양화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치우쳐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기독교대학에 입학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복음전파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학교에 입학한 비기독교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신대학교의 신앙소그룹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 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신앙 소그룹 제도가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신앙 소그룹의 모델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신대학교에서 비기독교인 신입생으로서 신앙소그룹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230여명을 대상으로 2013. 11. 1 ~ 11. 6까지 신앙 소그룹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앙 소그룹제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신앙 소그룹제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현재 고신대학교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하여 채플을 대신하여 실시하고 있는 신앙 소그룹제도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신앙 소그룹제도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신앙소그룹모임 만족도와 관계된 요인분석을 위하여 고신대학교의 2013학년도 신입생들 가운데 비기독교인 학생들로서 2013학년 2학기에 신앙소그룹모임에 참석하였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앙소그룹 모임은 1학기과 2학기로 나누어 진행된

15) 김흥진 “대학채플에서 구원초청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실행.” 「대학과 복음」 제5집 (2001), 6-32.

16) 김흥진 “무신론 시대에 기독교대학 채플에서 하나님 이해 설교의 가능성 모색.” 「대학과 복음」 제8집 (2003), 25-57.

다. 그리고 2학기 참여 학생 수는 1학기 참여 학생수 보다 적다. 1학기를 지난 후에 군 휴학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휴학생들과 신앙 소그룹모임에서 채플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2013학년도 1학기에는 257명이 신앙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2학기에는 223명이 신앙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였다. 신앙소그룹 모임은 기본적으로 영도캠퍼스에 있는 비신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연구대상은 의예과와 신학계열 학과들(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국제문화선교학부, 태권도선교학과)과 교회음악과를 제외한 15개 학과의 223명으로 제한되었다. 그 가운데 미응답자 45명을 제외한 178명이 최종 연구대상에 선정되었고, 성별 분포도는 남학생은 63명 여학생은 115명 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고신대 강연정, 이현철 교수가 사용한 조사도구(2013)를 두 교수의 허락 하에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3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소그룹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수치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74이다. 각 영역별 문항 신뢰도는 <표3>과 같이 나타났고, 모두 Cronbach α 0.6이상으로 적합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3> 측정문항 및 문항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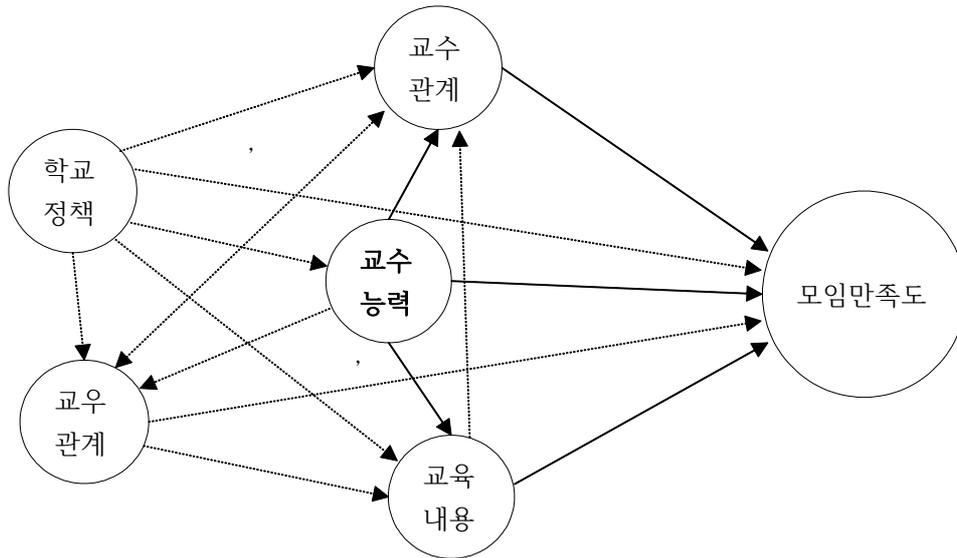
영역	문항	문항신뢰도	
		영역	전체
소그룹만족도	1. 경건모임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 경건모임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3. 교수님은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4. 나는 경건모임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에 만족한다. 5. 나는 경건모임의 수업 내용에 만족한다. 6. 나는 경건모임의 전반적 분위기에 만족한다. 7. 나는 경건모임 내의 인간관계에 만족한다.	.942	.974
교수관계	1. 경건모임 교수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2. 경건모임 교수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3. 나는 장래에 경건모임 교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4. 교수님은 나의 행동을 잘 이해해 주신다. 5. 교수님은 나에게 항상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신다. 6. 경건모임 교수님은 나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	.930	
교우관계	1. 나는 경건모임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2. 나는 경건모임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3. 나는 경건모임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 나는 경건모임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5. 나는 경건모임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6. 나는 경건모임 친구들과로부터 인기가 많으며 친한 관계를 맺고 있다.	.928	
학교생활	1. 경건모임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2. 경건모임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3. 경건모임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4. 경건모임은 비신자 학우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경건모임을 통하여 학교에 나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었다.	.918	

교수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님은 학생들이 교회생활을 하도록 격려한다. 2. 교수님은 학생들이 도전감을 갖도록 모임을 진행한다. 3. 교수님은 학생들의 개인 스타일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4. 교수님은 학생들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5. 교수님은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는지 학생들에게 확인한다. 6. 경건모임 교수님은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926	
교육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할 때 전 시간의 내용을 환기시킨다. 2.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할 때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제시한다. 3. 교수님은 수업 목표를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제시한다. 4. 교수님은 수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다. 5. 교수님의 수업 내용은 학생들에게 적절하다. 6. 교수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신다. 	.930	
학교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된 행정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경건모임의 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 경건모임의 커리큘럼에 만족한다. 4. 운영에 관련된 학교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 경건모임을 2학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경건모임을 학점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90	

3. 모델설정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모델은 독립변수들인 교수관계, 교수능력, 교육내용, 학교정책, 교우관계 등의 변수간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하여 종속변수인 모임만족도를 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독립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모델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델 및 가설의 설정



[가설 1]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교수능력’을 중심에 둔다.¹⁷⁾ 그것은 교수능력으로부터 교수관계와 교육내용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능력으로도 교우관계는 부분

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간접적인 관계인 것으로 간주한다.

[가설 2] ‘학교정책’은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외생변수로 볼 수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가설 3]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교수관계’와 ‘교우관계’는 독립변수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는 변수로 본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핵심적인 분석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다. 회귀분석의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적정사례수를 고려하여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를 200명 정도로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178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6개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는 2013년도 신입생들의 신앙 소그룹 제도에 대한 만족도이며,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는 교수관계, 교수능력, 교육내용, 학생관계, 학교정책 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각각의 독립변수들과 관심변수들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러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이후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어떤 요인들이 신입생들의 소그룹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자료 분석에는 SPSS 22.0 version을 활용할 것이다.

5. 연구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신앙 소그룹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기술통계에 의한 만족도는 <표4>와 같이 나타났다. 신앙소그룹에 대하여 4.0995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N
모임만족도	4.0995	.74993	178
교수관계	3.8296	.80760	178
교우관계	3.8380	.77456	178
학교생활	3.9090	.82533	178
교수능력	4.0300	.73734	178
교육내용	4.0815	.70047	178

17) 알란 하만/ 이상규 역, “기독교 고등교육과 교수의 역할,” 이상규 편.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참조.

학교정책	3.9391	.71847	178
------	--------	--------	-----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관심 변수인 신앙 소그룹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심 변수에 대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5> 상관분석 보고서(Report of Correlation Analysis)

	모임만족도	교수관계	교우관계	학교생활	교수능력	교육내용	학교정책
모임만족도	1						
교수관계	.815**	1					
교우관계	.530**	.557**	1				
학교생활	.807**	.792**	.561**	1			
교수능력	.789**	.765**	.535**	.767**	1		
교육내용	.742**	.747**	.492**	.774**	.848**	1	
학교정책	.692**	.665**	.506**	.685**	.674**	.706**	1

** . 유의수준이 $p \leq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가설은 소그룹만족도와 관심변수들 사이의 상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수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아주 강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 유의확률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는데, 분석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소그룹만족도와 관심변수들 사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임만족도에 대한 관심변수들의 상관관계는 교수관계(.815), 학교생활(.807), 교수능력(.789), 교육내용(.742), 학교정책(.692), 교우관계(.530)의 순서로 모임만족도와 독립 변수들 사이의 상관이 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모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점이다. 가정된 독립변수 6가지 모두가 관심변수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수관계, 학교생활, 교수능력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학생-교수관계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석을 통하여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소그룹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교수와 관련된 요인들이었다는 점이다. 교수관계(.815)와 교수능력(.789)이 각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교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육내용(.742)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소그룹 안에서 교수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일수록 모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로, 유의해서 볼 만한 내용은 소그룹 만족도와 교우관계(.530)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교우관계가 결코 낮은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관계변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교우관계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은 적어도 비신자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 모임에서는 교우관계보다는 교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 신앙소그룹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성별간의 신앙소그룹 만족도

신앙소그룹 모임의 만족도에 관한 남·여 학생들 간의 차이를 조사해 보았다. 성별에 따른 신앙소그룹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의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학생들의 만족도(4.2313)가 여학생들의 만족도(4.027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T-검정을 실시했고, 결과는 아래의 <표6>와 같이 나타났다.

<표6> 성별간의 신앙소그룹 만족도

		성별	
		남자	여자
소그룹모임 만족도	N	63	115
	평균	4.2313	4.0273
	표준편차	.76046	.73744
	t(p)	1.745(.083)	

T검정의 귀무가설은 '신앙소그룹 만족도는 남·여 간의 차이가 없다'이다. 유의확률은 .083으로 $p > 0.05$ 이므로 '신앙소그룹 만족도에서 남·여 간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신앙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족도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 차이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만, 좀 더 연구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요인분석을 통하여 남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며, 여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두 그룹에 각각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다중회귀분석

상관분석을 통하여 관심변수에 대하여 각 요인들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이 관심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은 되었지만, 변인들 중에 어떤 요인이 관심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능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은 교수관계, 교우관계, 교수능력, 학교관계, 교육내용, 학교정책 등이 신앙 소그룹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먼저 각각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적은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어떤 변수가 설명력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 선택 방법에서 전진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표8>과 같은 모형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형 요약에 나타난 것처럼 R^2 의 값이 0.7이상이므로 모든 모형이 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8>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a_0)	.457**(.167)	.480**(.173)	.481**(.182)
교수관계(X_1)	.308**(.062)	.311**(.062)	.311**(.063)
학교생활(X_2)	.253**(.062)	.260**(.063)	.260**(.064)
교수능력(X_3)	.247**(.065)	.269**(.078)	.270**(.078)
학교정책(X_4)	.122**(.056)	.129**(.058)	.129**(.059)
교육내용(X_5)		-.044**(.083)	-.044**(.083)
교우관계(X_6)			-.001**(.045)
N	178	178	178
R제곱	.767	.767	.767
조정된 R제곱	.762	.761	.761
표준오차	.366	.367	.367

** $p \leq .001$

따라서 소그룹 운영과 관련된 요인들이 소그룹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모형3을 선택하여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소그룹 요인들과 소그룹 만족도 사이의 영향 관계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767, 유의수준 $p=.000$ 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정된 $R^2=.759$ 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자료를 반영하는 정도인 설명력은 76.7%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이고 분산확대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이하를 보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소그룹만족도와 독립변수들과의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p-value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한계	VIF
소그룹 만족도	(상수)	.481	.182		2.638	.009		
	교수관계	.311	.063	.335	4.924	.000	.294	3.400
	학교생활	.260	.064	.286	4.054	.000	.273	3.665
	교수능력	.270	.078	.265	3.446	.001	.230	4.352
	학교정책	.129	.059	.124	2.197	.029	.430	2.324
	교육내용	-.044	.083	-.041	-5.29	.597	.226	4.431
	교우관계	-.001	.045	-.001	-.020	.984	.628	1.591
$R^2=.767$, 조정된 $R^2=.759$ df=6, 172, F값이 94.072, 유의수준 0.000								

<표 8>에 나타난 회귀분석 결과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 = a_0 + a_1X_1 + a_2X_2 + a_3X_3 + a_4X_4 + a_5X_5 + a_6X_6 \text{ 에서 상수를 대입하면}$$

$$Y = .481 + .311X_1 + .260X_2 + .270X_3 + .129X_4 - .044X_5 - .001X_6$$

(.182) (.063) (.064) (.078) (.059) (.083) (.045)

* () 안의 숫자는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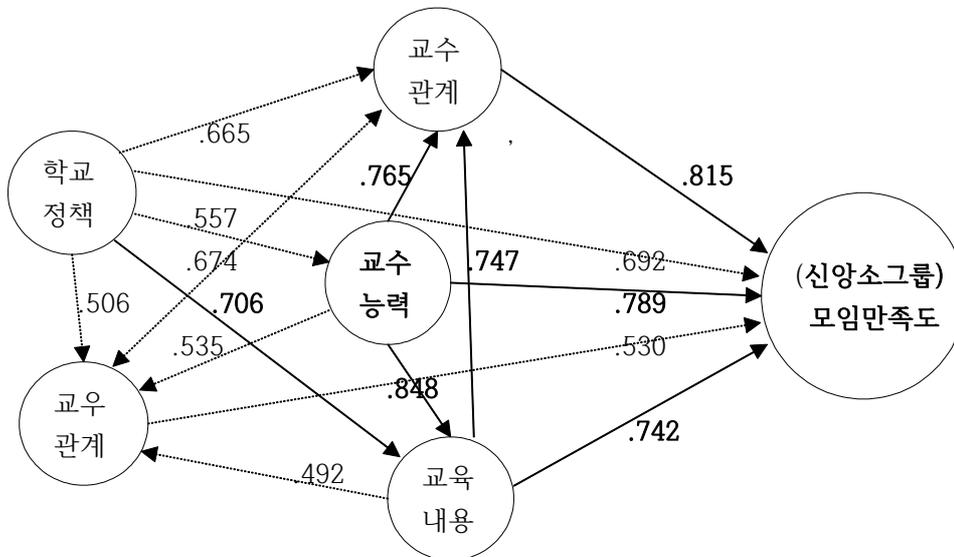
위의 회귀식에서는 교수관계와 교수능력, 학교생활이 주 독립변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재미 있는 현상은 (1) 단계(step)가 올라 갈수록 ‘교수능력’(X₂)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과, (2) 교육내용(X₅)이 음(-)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어서 <표5>에 나타난 상관관계의 결과와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3) ‘모임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수능력(X₂)과 교수관계(X₁)임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모델의 검증 결과

이상의 기술분석 및 회귀분석과 특히 <표 5>의 상관관계분석결과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모델의 검증 결과



이는 모델설정 시에 세운 [가설 1]은 연구모델에서 ‘교수능력’을 중심에 두었는데 그것은 교수능력으로부터 교수관계와 교육내용, 교우관계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능력으로도 교우관계는 상호 간접적 관계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결과 역시 [가설 1]과 거의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수능력’을 중심에 둔 것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 한다. 단지 교수능력(.789) 보다 교수관계(.815)가 모임만족도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수능력이 교수관계에 영향을 주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수능력’을 중심에 둔 결과와 불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모델설정 시에 세운 [가설 1]과 같이 ‘교수능력’은 교육내용(.848)와 교수관계(.765)와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델설정에서와 같이 교우관계(.535)와 외생변수로

설정한 학교정책(.674)은 앞의 세 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모델설정에서 세운 [가설 2]와 같이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외생변수로 설정한 '학교정책'은 교수능력(.674), 교수관계(.665), 교우관계(.506)에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내용(.706)과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우연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가설 3]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교수관계'와 '교우관계'는 독립변수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는 변수로 보았는데, '교수관계'는 교수능력(.765), 교육내용(.747), 교우관계(.674), 학교정책(.665) 등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교우관계'는 교수관계에 비해서는 낮은 교수능력(.535), 학교정책(.506), 교육내용(.492)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교우관계와 교수관계(.674)와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3]에서 '교수관계'에 관해서는 일치하지만 교우관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한국 고유의 인간관계 중시문화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변수인 '모임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교수관계(.816), 교수능력(.789), 교육내용(.742)은 모델설정에서와 같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정책(.692), 교우관계(.530)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애초에 세운 모델설정을 거의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타내고 있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방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으나, 독립변수 간의 상호 영향관계의 방향성은 상관관계분석만으로는 모델과 일치한다고는 보나 단정적으로는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신앙 소그룹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을 통하여 향후 신앙 소그룹 모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신앙 소그룹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소그룹 만족도에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던 신앙 소그룹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각각의 변인들로 제시되었던, 6개의 독립변수들(교수관계, 교수능력, 학교생활, 교육내용, 학교정책, 교우관계) 모두가 상당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신앙 소그룹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순서를 보면, 교수능력, 교수관계, 학교관계, 교육내용, 학교정책, 교우관계의 순서였다. 이에, 독립변수들이 관심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명력의 차이가 있을 것을 기대하여 입력선택 방법으로 단계적 변수등록(stepwise)을 선택하여 3개의 모형은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설명변수들이 관심변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신앙소그룹 모임 만족도의 개선과 효율적 신앙 소그룹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진 구성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소그룹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설명변수는 교수와 관련된 변수들, 특히 교수능력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능력 있는 교수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은 궁극적으

로 소그룹 만족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신앙 소그룹 모임의 교수진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비기독교인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수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권위적이기 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개인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교수진들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수에게 집중된 학생들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소그룹 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변수들이 교수와 관련된 변수들이라는 점은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교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소그룹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소그룹에 교수와 학생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해 주기도하고, 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교제용 금전적 보조와 같은 유인기재를 마련해 주거나 원만한 상급 학생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 학생들은 선배들로서 이미 신앙소그룹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인격적인 성숙을 경험한 학생들이 적합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효과적으로 소그룹의 도우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에게 인격적,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교수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와 함께, 학생들의 교수 의존도를 낮추어 줌으로 교수관계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내용 보다는 교수관계에 더 집중되는 현상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셋째,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소그룹 만족도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설명력을 약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교육내용의 부실함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커리큘럼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면서도 기독교를 잘 설명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신앙 소그룹 모임을 위한 전략적인 학교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앙 소그룹제도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들이 교수와 관련된 변수들이므로 분석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와 관련된 설명변수들이었다. 따라서, 학교는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교가 정책적으로 자신들이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도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조사 결과 비단 비기독교인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신입생 전체를 향한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들임에 틀림없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신입생들이 학교를 대하는 마음이 보다 편안해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교수관계가 학생들의 학교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앞선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바 있다. 따라서 학교는 신입생들이 학과 교수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교양학부의 교수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수,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오병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편찬 위원회. 『기독교대학과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 부산: 고신대학교, 1996.
- 강연정·이현철, “대학생의 학과적응 및 수업만족을 위한 요구분석”, 『기독교교육연구』 제6집, 2013: 7-33.
- 강영선, “대학 채플의 방향정립을 위한 연구” 『한신논문집』 제3집, 1986: 353-390.
- 구완서, “학생들의 자의식 및 채플에 대한 연구: 인덕대학 1학년생을 중심으로” 『대학과 복음』, 제12집, 2006: 9-39.
- 김문영, “한국 기독교대학 채플에 대한 비평적 연구: 이머징 채플(Emerging Chapel)로서의 대학채플,”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94.
- 김소연,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제34집, 2012: 181-209.
- 김양현, “기독교대학 학생채플에 관한 고찰” 『전문대학 기독교교육』 제2집 (1998): 5-38.
- 김홍진, “대학채플에서 구원초청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실행” 『대학과 복음』 제5집, 2001: 6-32.
- _____, “무신론 시대에 기독교대학 채플에서 하나님 이해 설교의 가능성 모색” 『대학과 복음』 제8집, 2003: 25-57.
- 다이크마, 안토니/ 이상규 역, “지성을 위하여,” 이상규 편.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 박상진, 『기독교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샤벨, 케네드/ 이상규 역, “기독교 고등교육, 실증주의, 신실증주의 그리고 미래,” 이상규 편.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 신경규, “기독교 대학과 선교,” 이상규 편.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 이동찬·최현정, “대학채플의 만족도와 복음화율을 높이는 세례식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24집, 2013: 43-69.
- 이종환,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고양: 공동체, 2008.
- 유성준, “기독교 대학 채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제13집 2007: 133-149.
- 판더벨트, 존/ 이상규 역, “개혁주의 전통에서의 기독교 교육,” 이상규 역편.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 하만, 하만/ 이상규 역, “도전받는 기독교 고등교육,” 이상규 편.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 _____, “기독교 고등교육과 교수의 역할,” 이상규 편. 『기독교 대학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4.
- 한미라, “기독교 대학의 예배에 대한 창의적 접근: 채플 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 『기독교교육정보』 제23집, 2009: 69-108.

[Abstract]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the Non-Believers in Small Group Bible Study Meetings

Kyung-Kyu Shin
Professor
Kosin University

This article surveys a student satisfaction of the small seeker group for non-Christian new students who entered the Christian university. Also, this article analyses the factors which can be effected to the satisfaction. For the students of most universities which were established on the Christianity, joining a chapel is compulsory. The chapel is not only quite a powerful opportunity to preach the Gospel for non-Christian students, but also a good way to make their identity clear. However, most Christian universities seem to face various difficulties. Even though we may find many proper reasons for that, one of biggest reasons is in the rapid increase of new non-Christian students. In fact, all of Christian universities are running many different types of chapels for non-Christian students with many efforts of chaplaincy office. Unfortunately, these attempts seem to be limited.

This article has been written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research which were performed about the alternative program for non-Christian students by Kosin University. Kosin University started this program, since 2008. Approximately, 30% of new students every year seem to be classified as the non-Christian, so K university divides them into each 20 small groups. First, we analyse the satisfaction of these groups through Simple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 of this statistic shows 4.0995. It is quite high. In order to find any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test was performed,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n, we surveyed a correlation of each variables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to identify which variables are more influential. The result shows that all five variables have quite strong correlation. Especially, the professor variable has the strongest correlation.

Five independent variables were used in this article, including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PSR), Professor's Competence(PC), Teaching Contents(TC), School Policy(SC), and Peer Relationship(PR), and independent variable,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in small group Bible study meeting(SOS). The Conclusion of the Result shows that SOS has strong relationships with PSR, PC, TC, and has weak relationships with SP and PR, since SP is external variable and PR is uncontrollable by professors. Professor's Competence h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Students' Satisfaction, and it also causes PSR to be increased.

key words: chapel, Christian university, non-Christian new student, small group bible meeting, chaplaincy office, student satisfaction, university fitness

[국문초록] 신앙 소그룹모임이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에게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기독교대학에 입학한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신앙소그룹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독교 정신위에 설립된 대부분의 대학들은 채플참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채플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기독교대학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채플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들에 처해있다. 여러 원인들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기독교대학에 입학하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은 교목실을 중심으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채플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재 지방의 K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을 위한 채플 대체 프로그램에 관하여 조사하고 연구 및 평가한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지방의 K대학은 2008년부터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중심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채플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고,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의 일환이었다. K대학은 약 30%의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이 해마다 입학하고 있고, 이들을 약 20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1년 동안 채플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그룹을 운영에 관하여 단순기술통계를 통하여 소그룹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소그룹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0995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고, 남녀 간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소그룹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독립변수로 가정한 5개의 변인들이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교수관련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 변인들이 관심변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교우관계와 교육내용이 설명력이 가장 낮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모델설정 시에 세운 [가설 1]은 연구모델에서 '교수능력'을 중심에 두었는데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결과 [가설 1]과 거의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능력'은 교육내용(.848)와 교수관계(.765)와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교우관계(.535)와 외생변수로 설정한 학교정책(.674)은 앞의 세 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모델설정 이 세운 [가설 2]와 같이 외생변수로 설정한 '학교정책'은 교수능력(.674), 교수관계(.665), 교우관계(.506)에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내용(.706)과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우연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가설 3]에서 '교수관계'는 교수능력(.765), 교육내용(.747), 교우관계(.674), 학교정책(.665) 등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교우관계'는 교수관계에 비해서는 낮은 교수능력(.535), 학교정책(.506), 교육내용(.492)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교수관계(.674)와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과변수인 '모임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교수관계(.816), 교수능력(.789), 교육내용(.742)은 모델설정에서와 같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정책(.692), 교우관계(.530)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대학, 채플, 비기독교인 신입생, 학교만족도, 소그룹, 성경공부, 교수능력

신앙소그룹모임이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에게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논평

김성욱(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4년 제31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컨퍼런스의 주제 “학자의 삶속의 선교적 만남”은 오늘의 기독교대학과 기독교학자들의 선교적인 존재목적에 각인하는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 컨퍼런스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의 확산과 함께, 아울러 선교적인 노력과 새로운 선교 전략의 도출을 기대해 본다.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가 세계선교에 공헌하고 이룩한 선교결과는 세계에서 미국교회와 함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

이러한 선교한국과 함께 기독교학문연구를 담당하는 학자들이 “선교적인 만남”을 주제로 개최된 본 학술 대회는 그 의의 또한 크다고 본다. 기독교학문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학문적인 연구활동을 추구하면서, 학문영역과 교실에서 만나는 다양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날 선교적인 열매도 크게 기대된다. 더구나 오늘날 한국 대학교의 현실은 국가의 다문화정책과 연관되어 한국 대학교정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외국 유학생들의 현상을 보면서, 오늘의 기독교학문 연구 학자들의 대학에서 선교적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신경규교수의 “신앙소그룹모임이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에게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먼저는 기독교대학의 비기독교신입생들의 입학비율의 증가로 인한 채플운영의 문제들과 효율성에 대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교목실을 통해 채플을 실시하는 대학교 수는 46개교로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채플운영상 비기독교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다양한 연구논문들과 자료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내용은 고신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을 위한 신앙 소그룹모임과 그 소그룹모임의 영향에 나타나는 요인들 연구에 관한 것이다. 비기독교 신입생들의 모임만족도에 대한 통계 결과는 1)교수관계, 2)교수능력, 3)교육내용, 4)학교정책, 5)교우관계로 나타나면서, 교수관계와 교수 능력이 비기독교 신입생들의 신앙교육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이 주는 유익과 공헌점은 오늘의 대학캠퍼스 선교의 현장을 심도있게 보여준다는 점과 설문통계를 통한 구체적인 학원선교전략으로서 기독교 대학의 수준 높은 대학교수의 선교적 역할과 그들을 통한 교수능력과 교수 내용의 중요성의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문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분석과 분명한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바쁜 학기가운데 본 논문을 준비하고 발표하신 신경규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1) 한국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1980년에 100의 선교사를, 그리고 1990년에 1,000명의 선교사를, 2000년에는 10,000명의 선교사를, 그리고 2010년에는 2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현재는 25,000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미국교회와 함께 세계선교의 선두주자로 섬기고 있다.